한 報告는 뒤에 大邱近郊遺物과 같이 하겠으며 우선 이곳 特異性을 紹介하여 敎示를 받고자 하는 바이다。

覺淵寺 石造毘盧舍那佛坐像(覺淵寺調査記 上)

鄭 永 鎬

忠北 槐山郡 長延面 臺成里에서 約八㎞되는 臺成部落의 寶盖山麓에 覺淵寺가 있다。 羅代의 名刹로 巨大한 規模였다고 傳하나 現在는 建物로 大雄殿과 毘盧殿 뿐이며 石造遺物은 境內의 毘盧舍那佛을 비롯 通一大師塔碑 等 數點이 隣近에 殘存하고 있다。 現住持 李聖出(六三歲)氏 말에 依하면 近年 農耕時에 出土된 龜趺一座와 屋蓋石等으로 보아 아직도 많은 遺物이 埋沒되어 있을 것이라 한다。

一、毘盧舍那佛坐像

毘盧殿內 主尊으로 奉安되어 있으며 原位置로 생각되는 바 이 建物의 柱礎石 및 基境石들은 羅代 本來의 것으로서 佛國寺極樂殿의 類例임에 注目된다。 坐像은 總高 三〇二㎝로서 光背와 臺座를 具備한 完形이다。 螺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있고 白毫는 없으며 三道가 돌렸고 兩耳가 길게 느리워졌다。 相好는 圓滿하며 兩眉眼 鼻梁 口唇 等 完全한데 各部를 彩色하여 原狀을 그릇쳤음이 遺憾된 일이라 하겠다。 右肩偏袒의 法衣는 左腕에 걸쳐 兩膝을 덮었는데 그 衣文이 流麗하다。 光背는 二條線으로



서 頭·身光을 區別했고 頂面에 三軀의 化佛과 左·右 三軀씩의 配置로 都合九軀의 合掌한 化佛이 蓮華座 위에 彫刻되었다。 頭光의 八葉蓮瓣外間地에는 頭·身光 모두 雲紋이며 周緣에는 멋진 火焰을 陽刻하였다。

한편 光背의 뒷面에는 伏蓮을 彫刻한 위에 九〇㎝×五一㎝의 額을 마련하고 그 위 帳幕을 겹겹이 내린 듯한 寶蓋의 裝飾이 있는데、光背背面에 佛像을 彫刻한 例는 慶州南山에서나 密陽舞鳳寺에서 볼 수 있는 바이지만 여기서의 이러한 樣式은 最初로서 或是나 寶塔의 意匠이 아닌가?의 생각으로 퍽 注目되는 바이다。 臺座는 八角으로 上中下臺가 整然하다。 一枚의 地臺石上에 一石의 下臺가 놓였는데 各面마다 眼象이 있고 그 안에 四面에는 香爐를 二面에는 花瓣만을 他二面에는 二軀씩의 飛天像을 陽刻하였으며 八瓣의 伏蓮 그 八隅에는 山形紋의 귀꽂이 있고 上面에서 四分圓의 몰딩과 角形 받침으로서 괴임돌을 받고 있다。 괴임臺는 一石으로서 받고 上面에 四分圓과 角形괴임이 刻出되어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는 全面에 雄麗한 雲紋을 彫刻하였고 各面마다 中央部에 짐승(獸)을 陽刻하였는데 一面만은 연봉이다。 獸形은 頭像만으로서 그 形態는 上下左右를 向하는 等 各異하다。 그 위 上臺는 下面에 낮은 괴임 三段이 있으며 單葉重瓣 仰蓮의 各瓣內는 花紋의 裝飾이 있다。 實測値는 (㎝) 坐像高 一二八 肩幅 六三 光背高 一九〇 廣幅 一四〇 臺座高 一一二 坐頭高 四五 胸幅 四四 光背厚 十一 下幅 一〇一 上臺徑 一二〇이다。

屋內의 遺物임으로 保存이 良好하다。 坐像의 手法이나 光背의 火焰、化佛의 配置 臺座各部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新羅下代로 推定된다。 이 坐像은 完形으로 各部가 잘 具備되고 年代도 올라가며 保存이 좋아서 昨年度에 文化財委員會에서 寶物로 指名되었음을 附言한다。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

朴 商 憲

釜山地方 海岸에서 貝塚 等 史前遺蹟이 여러곳 알려져 있으나① 支石墓는 別로 알려진 것이 없는 것 같다。

甘川洞은 그리 넓은 地帶는 아니지만 三面에 山이 둘려지고 南海 甘川灣을 向하여 南쪽이 열린 海岸地帶인데 뒷동산 넘어 約 五〇〇m 距離에 槐亭洞貝塚②이 있고 灣의 東端인 約 一㎞ 地點에 岩南洞貝塚을 바라보며 西端인 約 四㎞ 地點에는 多大浦貝塚이 알려져 있다。 이런 位置에서 아무런 遺蹟도 나타나지 않은데 注目하여오던 中 現存치는 않으나 支石墓 三個가 있었다는 事實을 비롯한 몇 가지 資料를 確認하였기에 記錄을 남겨 두고자 한다。

一、甘川洞 支石墓에 對하여

(1) 第一號 支石墓

昨春(一九六四、二四)에 甘川洞 五六二番地 밭에서 同洞五九八番地 居住 盧日天氏(當四九歲)外 數名이 私設道路 工事中 石劍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現場은 이미 攪亂되어 있었으나 남은 土層調査와 盧氏를 비롯한 人夫들의 說明을 通하여 攪亂前의 狀態를 把握한 바 大略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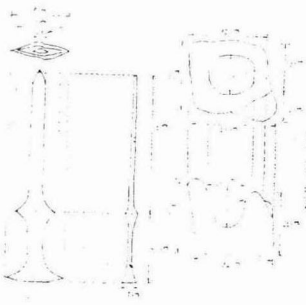
表土層의 上部 約 一m되는 곳에는 麗末以後의 것으로 보이는 器皿片과 木葉紋瓦片이 數點박혀 있었고 下部 約 〇·五m되는 層에는 岩石을 깬 것으로 보이는 二〇—三〇cm 크기의 石塊가 散在하여 박혀 있었다(數石이나 積石의 狀態가 아님)。 이 石塊 틈에서는 灰靑色 土器片이 散見되었고 石塊層 밑에서는 麗代것으로 보이는 幾何紋瓦片이 發見되었으며 그 밑에서부터 土質이 달라져 生土層이 나타난다。 이 表土層 一部의 斷面이 現在 道路邊에 露出되어 있다。

石塊層 下部에는 支石으로 認定되는 高 約 六〇cm 幅 約 七〇cm의 둥근돌 一個와 一部가 破碎된 흔적이 있는 長 七〇cm 幅 五〇cm가량의 돌 一個外의 數個의 크게 破碎된 石塊가 있었는데 이 中 둥근돌은 地中 깊이 石劍 出土層위까지 박혀 있었다。 이 돌들은 現在 모두 新設된 道路밑에 묻혀 있으므로 容易하게 確認할 수 있다。

이 돌(支石)밑 地下 約 一m에서 大略 長方形을 이룬 붉은 黃土層이 나타났는데 이미 파헤친 뒤였으나 가능한대로 略測해보니 長 二·二m 幅 〇·九m 厚 〇·五m가량이며 南北으로 長軸을 두고 있었다。 둘레에는 直徑 二〇—三〇cm가량의 둥근 바닷가 돌이 놓여 있었으나 人夫들이 注意없이 攪亂시킨 뒤여서 그 놓인 狀態를 確認할 수 없음이 遺憾이었다。 그러나 돌의 數로 미루어 볼 때 가에 한줄로 놓였던 것 같다。 이 돌도 現在 道路밑에 묻혔는데 그 中 標本이 될만한 것을 數個 採集해 두었다。 板石이나 土器片 等은 보이지 않았다。

黃土層 底部에는 拳大의 礫石이 드물게 깔렸는데 그 위에 磨石劍이 西쪽에서 約二〇cm 南쪽에서 約七〇cm되는 곳에 劍頭를 두고 끝은 北을 向하여 水平으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石劍은 粘板岩製로 全長 二六·五cm 幅 二·六cm인데 精巧하나 輕弱해 보이며 特徵은 없고 끝이 조금 缺失되었다。 底面 礫石中에 加熱된 흔적이 있는 小石片과 木炭片이 粘土섞인 흙과 같이 있기에 이를 採集했다。

以上으로 이것이 金石併用期의 南方式支石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撐石과 一部 支石은 어떻게 됐으며 表土下部의 石塊層은 무엇일까。 이 表土 下部 石塊들을 살펴보면 모두 同一岩石의 破片임을 알 수 있으니 撐石과 一部 支石을 깬 것일 것이며 여기에 섞여 있는 瓦片과 器皿片은 이 支石墓가 麗代 以後에 破壞되어 그 破片을 地中에 埋沒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表土層 上部 흙속에 섞인 器皿片이나 木葉紋瓦片은 亦是 麗代 以後에 이곳에 建築物이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撐石이나 支石 一部가 麗代 以後 어느 때에 破碎되어 垈地工事에 使用됐다고 보여진다。 이 地帶는 元來 傾斜地였으나 平地化하기 爲해 높은 땅을 깎아서 低部를 埋立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埋立한 땅을 堅固히 하기 爲해 돌을 넣을 必要가 있었다고 본다。



甘川洞支石墓出土磨石劍 甘川洞出土·石皿

그러나 支石墓는 古來로 俗信의 對象이었고 記錄에 보면 麗代에

이미 이런 俗信이 있었다는데③ 어느 時代이건 何必 支石墓를 破壞하고 그 위에 民家을 세운다는 것은 無理한 생각일 것 같다。 그러므로 좀 다른 角度에서의 考察이 必要하다。

甘川洞은 記錄에 「多內里」「甘來里」「甘川里」 等으로 나와 있으며 俗稱 「불미골」④이라고 불린다。 南海 防禦의 要塞인 西平鎭營과 天馬山城을 左右에 끼고 龜浦를 거쳐서 梁山 密陽 慶州 等으로 通할 수 있는 洛東江 東岸 陸路의 入口에 該當되는 地點이며 附近 山頂이나 平地에 數多히 散在하는 新羅土器片이나 瓦片 等은 이곳이 羅代 以來의 軍事的 要地임을 짐작케 한다。 또한 海灣을 出入하는 船舶과 人數等을 檢問하는 守門과 官廳이 여기에 있었다는 引用記錄⑤을 본일도 있고 한때는 牧馬城으로 使用되기도 한 곳이다⑥ 한낱 漁村에 不過했을 이 地帶에 各種 瓦片이 널리 散在하고 있으니 큰 建物이 여러채 있었다고 믿어지는데 寺刹 位置도 아니고 보니 要塞에 關聯있는 建物이 었을 것이다。 結局 이 支石墓는 麗代以後에 軍(官)用建物施設을 爲해 破壞된 것이라고 推定이 된다。 마침 이 자리는 灣을 正面한 이 언덕의 中央地인 것이다。 二、三號 支石墓는 언덕가에 있었기 때문에 破壞를 免한것 같다。 여기에서 麗代以後라는 말을 쓴 것은 이 附近表土에는 瓦器片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이 흙으로 埋立한 境遇 훨씬 後代에 되었더라도 麗代瓦片이 石塊層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添言해 둔다。

(2) 第二號 支石墓

第一號 支石墓에서 南西로 約二〇m되는 道路邊에 長軸을 南北으로 두고 있었는데 昨年에 盧日天氏와 甘川洞 山二二番地 居住 李榮雨(石手當三九歲)가 이를 破碎하여 貯糞槽를 築造하는데 使用한 事實이 現場調査와 本人들의 說明(錄音했음)에 依하여 確認되었다。 現場에는 碎石片이 쌓여 있으므로 位置가 分明하며 地上物은 없어 졌으나 地下의 遺構調査는 可能할 것으로 본다。 前記 石手 等의 말에 依하면 撐石의 長이 一〇餘尺 幅 五、六尺 厚 三、四尺쯤 되어서 數人이 낮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3) 第三號 支石墓

第二號 支石墓에서 約 一〇m되는 곳에 亦是 南北으로 長軸을 두고 西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도 昨年에 釜山市에서 火力發電所앞 道路擴張工事를 할 때 大型부루도자로 밀어서 路邊에 있던 貯糞槽를 메우고 그 위를 道路로 만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地下遺構는 없어졌으나 撐石은 現場에서 約一五m되는 道路밑 깊이 一m쯤되는 곳에 묻혀 있는데 道路를 팔 수 없어서 實測하지 못했다。 村人들의 말로는 크기나 놓인 狀態가 第二號 支石墓와 같았다고 한다。 이 附近에서 無紋 赤色土器片과 器柄(牛角形)을 採集한 바 槐亭洞貝塚 等의 것과 같은 것이었다。

以上으로서 石劍의 發見으로 蓋石을 찾다가 偶然히 三個의 支石墓를 알게 되어서 住民들의 말을 錄音하며 現場을 調査했으나 모두 現存치 않은 데다가 元來 民家地帶가 아니고 一〇餘戶되는 住民들도 모두 近來 移住해 온 사람인 탓으로 이 支石墓에 對한 傳說이나 由來도 들을 수 없어서 調査가 어려웠다。 後日 더욱 確實한 資料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일찍 發見치 못하여 哀惜하긴 하나 釜山의 支石墓가 永遠히 사라질 段階에서 그 記錄이라도 남기게 된 것을 多幸으로 여기고 協助하신 여러분께 感謝를 드린다。

二、甘川洞出土 石皿

昨年一〇月 甘川洞 所在 聖芬道孤兒院生들이 第一號 支石墓에서 約一〇〇m되는 山麓을 耕作할 때 地下 約一m地點에서 石皿 一個가 出土된 바 아울러 紹介코자 한다。

石皿이라기보다 작은 石臼라고 하고싶은 것인데 거의 正四角形의 粗質 花崗岩 中央에 口徑 二〇cm 深 一七cm의 둥근 구멍을 팠는데 구멍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石臼처럼 圓底를 이루었으며 구멍의 한쪽은 낮아서 (上部 面이 기우러진 關係로) 구멍 속에 들은 것을 긁어내기 좋게 되어 있다。 穀物 等을 찧는데 쓰는 小臼 役割을 했을 것 같다。 伴出된 遺物은 없으나 二〇餘m 떨어진 곳에서 軟質土器片을 採集했다。

이 一帶는 앞으로의 調査가 期待되는 곳이다。

註

① 朴敬源 著「慶南의 古蹟과 그 文化」 釜山市條 參照

② 本誌 第六卷 第六號 拙稿「洛東江口東岸의 貝塚」參照

③ 李奎報「東國李相國集」「南行日記」에 『明日將向金馬郡求所謂支石者觀之支石者俗傳古聖人所支果有奇述之異常者』라고 있음

④ 「東萊府誌」에 『石城山在府南四十里舊有烽燧今移龜峰』했으니 바로 天馬山城이며 『불미골』은 『불밑골——烽下谷』에서 온듯 함。 新羅土器片이 散在함

⑤ 釜山市立圖書館 所藏「釜山府史原稿」卷一에 依함

⑥ 「東萊邑誌」城廓條에 牧馬城이 『自古多大江邊至石城山麓十里』에 있다고 나와 있음。

考古美術 六—二

◎ 文化財 第一分委(十八次)

一九六五年 十二月 二十日 午後 一時 半부터 五時까지 管理局會議室에서 開催、出席委員은 金庠基 李弘稙 金元龍 黃壽永 專門委員 崔泳喜 鄭永鎬 孟仁在 申榮勳 金周泰 崔容完外 河甲淸局長 文化財課長 張係長 姜인구 外 關係官。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指定議決

國寶

・陳田寺址三層石塔(襄陽郡)(六六年 補修키로 함)

・益山王宮里五層石塔遺物……①純金金剛經板(附、金帶 二)十九枚 ②유리製舍利甁(附、金製栓 一 及 金製臺座二)一 ③金製方盒二 ④靑銅如來立像 一軀 ⑤金銅函二 ⑥其他遺物(香木 三包、구슬類一包 鐵片一 靑銅鈴一)

寶物

・禪林院址三層石塔(襄陽) 一

・ 〃 石燈 一

・禪林院弘覺禪師塔碑 龜趺 및 螭首 各一

・禪林院址浮屠 一

・陳田寺址浮屠(六六年 補修함)

・香城寺址三層石塔(束草市)(六六年 補修함) 一

・奉化北枝里磨崖如來坐像 一

・觀稼亭(月城郡江東面崔容完委員調書)

史蹟

・禪林院址

・咸陽 沙斤山城(孟仁在 委員 調書(別冊)에 의하여 審議)

・彦陽邑城

・河東 姑蘇城

・益山 彌勒寺址(假)

二、補修關係

・光州東五層石塔 保護柵 工事……保留함

・金山寺露柱 保護柵 工事……保留함

・水原長安門復原工事……城門石築만을 完全補修하기로함

・益山王宮里五層石塔設計變更의 件

(1) 土壇을 除去하고 石造基壇을 復元한다。

(2) 雜石刹柱를 除去하고 數枚의 方形石柱로써 한다。

(3) 舍利容器를 新造하고 重修記銅板을 만든다。

(4) 塔基周邊의 發掘調査를 한다。

(5) 塔周의 國有地를 찾아서 環境美化한다。

(6) 工事報告書를 作成하기 위하여 記錄 實測 撮影을 續行한다。

三、其他事項

・益山彌勒寺址貯水池工事를 中止케 하며 明年度에 發掘豫算을 計上實施한다。

・奉化北枝里發見半跏石像을 慶北大博物館으로 移管한다。

・慶州皇吾里古墳(未整理 慶北大)과 芬皇寺北方石室을 發掘한다(金元龍 委員報告)。

・江陵所在指定文化財(客舍 등)의 現狀과 文化財補修前現況調査의 必要性(鄭永鎬 委員報告)。

◎仁川市 景西洞 綠靑磁窯址 發掘調査

仁川市立博物館에서는 一九六五年 十二月 十九日부터 二十三日까지 仁川市 景